

“무주 곳곳 생태자원 즐겨요”

군,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1박2일 생태탐험’ 4월~10월 주말 총 20회 운영

올해는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1박 2일 생태탐험’을 상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은 무주반딧불축제에 대표 프로그램인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생태탐험’을 확대한 것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총 20회)을 이용해 즐겨볼 수 있다.

각 계절과 시기에 따라 ‘반딧불이 신비탐사(6월, 9월)’를 비롯해 ‘별소풍’과 ‘어사길 탐방’, ‘벚꽃길 트레킹’, ‘친환경 목공체험’, ‘덕유산 상고대 감상’ 등이 준비되며 예약은 무주반딧불축제 누리집(홈페이지)에 링크된 전용 사이트(www.mujutour.com)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3인 가족 35만 원, 4인 가족 40만 원, 5인 가족 45만 원이며, 1인당 1만 원의 무주사랑 상품권과 ‘전북투어패스권(5,900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오해동 과장은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1박 2일 생태탐험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가장 무주다운 힐링 여행상품”이라며 “생태녹색관광을 테마로 준비한 만큼 반딧불이와 밤하늘의 별, 나무와 꽃 등 곳곳에 펼쳐진 무주군의 생태자원을 만끽해보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별소풍에서는 천체 망원경을 직접 조작하며 아름다운 별자리를 찾아보는 즐거움과 함께 낭만적인 시골 밤의 정취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방문객의 해를 맞아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행사를 진행 중으로, 지역 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등 이용객(10만 원 이상 소비자)을 대상으로 머무와인동굴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입장료(2인)를 50% 할인해 주고 있다.

또 4월부터는 숙박이 가능한 반디랜드 통나무집과 레저바이크텔도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형 ‘무주반디여행권’과 ‘전북투어패스권’을 이용(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와 네이버, 쿠팡, 옥션, 11번가 등 20여 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매 가능)해도 알뜰한 무주여행을 즐길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1,900원짜리 무주반디여행권(36시간 동안 무주군에서만 이용 가능) 한 장이면 ‘태권도원 체험관 YAP’을 포함해 △반디랜드(한국관광 100대 명소)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입장), △머무와인동굴(입장), △목재체험장을 정상가의 총 59%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해 볼 수 있다.

14개 시군 대표 관광지과 카페, 맛집 등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권은 정상 이용가의 72% 할인된 가격(5,900)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24시간 동안(첫 관광지 이용 시점 기준) 이용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국가예산 확보 활동 본격 시동

전춘성 진안군수, 문체부 · 환경부 찾아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전춘성 진안군수는 18일 용담호 수질 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먼저, 전 군수는 환경부 생활하수와를 방문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취수원 오염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87.8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해당 사업예정지는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및 섬진강 상류지역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 마을하수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를 방문하여 용담호의 생태

관광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적극 활용한 △친환경 감성관광 벨트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774억)을 ‘신(新)광역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에 반영해주시기를 건의했다.

특히 용담호는 전라권과 충청권에 생명을 공급하는 국가 중요시설이나, 정작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어 소멸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상한 이번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어 미래가 있는 진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3000만원까지 상향

장수군이 올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올해로 시행 6년째인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군이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로 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돼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총 19개 항목이며, 특히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플론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의 보장 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보험 청구 방법은 사고 발생 시 (주)농협손해보험(1644-9666)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서 보험사에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 2000만원 확보

무주군, 7만 미만 시군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영예

무주군이 ‘2023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인구 7만 미만 지역에서 ‘우수’ 평가(2022년 3위)를 받았다.

무주군은 △지역 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현장을 수시 방문(31회)한 것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 국가예

산 확보(총 9건, 28억 7천여만 원), △도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벤처기업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기업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정성희 과장은 “무주군 지역 내 기업들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 군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1기업 1공무원 매칭 정책 등은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현재 정상 가동 중인 무주군 지역 내 기업체 수는 79곳(전북제조업체 총합 기준)으로 무주군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5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기업의 시설개선과 경영 안정화를 뒷받침해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공단지 입주업체 정례 간담회 등 호평

진안군은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2023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전춘성 군수의 공적적인 투자유치에 더해 행정의 적극적인 기업운영 애로해소 등이 돋보였다는 평가 속에서 대부분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진안군은 인구 7만 미만 그룹 도시 중 2위를 차지해 2000만원

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특히 군에서 처음으로 군수님과 함께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상·하반기 정례간담회’를 추진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했고,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공장폐수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등 기업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한 것이 평가 가점으로 작용했다.

진안군은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도

시 만들기’ 조성을 위해 친기업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 민원 신속 처리단을 구성해 기업 맞춤형 신속 민원 해소를 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 내 기업들의 협조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올해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지방소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